



유해란

‘영암 소녀’ 유해란, 고향서 시즌 2승 노린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한달 동안 이어진 방학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연다.

KLPGA 투어는 오는 25일부터 사흘 동안 영암 솔라시도 기업도시 사우스링스 영암 컨트리클럽 카일필립스 코스(파72)에서 팬텀 클래식(총상금 6억원)을 개최한다.

이 대회는 골프웨어 브랜드 팬텀을 운영중인 (주)크리에프앤씨가 후원하며, 국내의 정상급 골프선수 114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룬다.

2013년 이후 전남에서 7년만에 열린 KLPGA 정규투어 대회로,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 개최되는 대회로, 골프팬들과 도민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역출신 선수들도 고향팬들을 만난다. 순천 출신 이정은과 박결, 완도 출신 이소미 등 전남 출신 선수들도 다수 참가한다. 특히, 영암군 금정면 출신 골퍼 유해란은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또 올 시즌에 열린 8개 대회 우승자 가운데 미국으로 건너간 한국여자오픈 우승자 유소연을 제외한 7명이 모두 출전한다.

이번 시즌에 혼자 2승 고지에 올라선 상금 1위 박현경(20)은 시즌 3승을 노린다. 3승이면 다승왕과 상금왕 경쟁에서 아주 유리한 입지를 다진다.

대상 포인트 1위 이소영(23)과 평균타수 1위 김효주(25)를 비롯해 박민지(22), 유해란(19), 김지영(24), 김민선(25) 등은 시즌 2승에 도전한다.

아직 이번 시즌에 우승을 신고하지 못했지만 상

KLPGA 오늘 영암서 개막

전남서 7년만에 정규투어 이정은·박결·이소미 등 전남 출신 선수 다수 참여

위권 입상 단골 최혜진(21)과 임희정(20), 이다연(23), 오지현(24), 그리고 해외파 이정은(24)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대회 마지막 날 시상식에 김영록 전남지사와 우진석 크리에프앤씨 회장, 강춘자 KLPGA 대표 등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유튜브와 SBS 골프 등 채널을 통해 대회를 시청할 수 있다.

사우스링스 영암 컨트리클럽은 올해 문을 연 신설 골프장이다.

매립지를 메워 조성한 링크스 스타일인데 국내 골프장에서는 드물게 나무가 없고 언덕도 거의 없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이 크다는 뜻이다.

전장(6454야드)은 긴 편은 아니지만, 무른 페어웨이에서 볼이 잘 구르지 않아서 비거리가 짧은 선수들은 힘겨운 경기가 될 전망이다.

한 달 동안 대회를 뛰지 않아 실전 감각이 딱 떨어진 선수들은 낯선 코스 적응이라는 과제까지 풀어야



박결



이정은

야 정상을 밟을 수 있다.

최형열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KLPGA 대회가 오랜만에 우리 지역에서 개최돼 감회가 새롭고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대회를 통해 영암 솔라시도와 전남의 맛과 멋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솔라시도

기업도시 삼호지구는 지난해 10월 사우스링스 골프장 45홀을 개장했다. 노케디제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KLPGA와 협력해 골프학교, 골프 테마 전시관 건립 등 명품 관광레저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연합뉴스

메시·호날두 시대 저무나

UEFA 올해의 선수 후보 제외...더브라위너·레반도프스키·노이어 3파전

세계 축구계를 양분해 온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유럽축구연맹(UEFA) 올해의 선수 최종 후보에서 빠졌다. 둘 다 최종 후보 세 명 안에 들지 못한 것은 이 상을 제정한 이래 10년 만에 처음이다.

UEFA는 23일(이하 현지시간) 2019-2020 시즌 올해의 남자 선수 최종 후보 세 명을 발표했다.

케빈 더브라위너(맨체스터 시티),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마누엘 노이어(이상 바이에른 뮌헨)가 최종 후보 명단에 들었다.

더브라위너는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13골 20도움을 기록하며 유럽축구 도움왕에 올랐다.

레반도프스키는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15골로 득점 1위를 차지하는 등 지난 시즌 총 47경기에 출전해 55골을 몰아넣으며 바이에른 뮌헨의 '트레

블'(3관왕)을 이끌었다.

바이에른 뮌헨의 주장인 골키퍼 노이어도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6번의 '클린 시트'(무실점 경기)를 기록하며 팀의 트레블에 큰 힘을 보탤었다.

UEFA 올해의 선수는 국제적 상장에 없이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한 시즌 동안 클럽이나 국가대표팀에서 낸 모든 성적을 바탕으로 선정한다.

3명의 최종 후보는 2019-2020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32명)·유로파리그(48명) 조별리그 참가팀 감독 80명과 유럽스포츠미디어 그룹이 UEFA 회원국에서 한 명씩 뽑은 55명 기자의 투표로 가려졌다. 1위 표에 5점, 2위 표에 3점, 3위 표에 1점을 줘 점수를 합해 후보를 압축했다.

시상식 '단골손님'이었던 메시와 호날두는 모두 최종 후보에서 빠졌다. 최종 후보 3인의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메시는 네이마르(파리 생제

르맹)와 함께 53표를 받아 공동 4위에 머물렀다.

토마스 뮐러(바이에른 뮌헨·41표), 칼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맹·39표), 티아고 알칸타라(바이에른 뮌헨·리버풀·27표), 요주아 키미히(바이에른 뮌헨·26표)가 뒤를 이었다.

호날두는 25표로 10위에 처졌다.

메시와 호날두가 모두 최종 후보에 들지 못한 것은 UEFA 올해의 클럽 선수 대상 2010-2011시즌부터 현재의 이름으로 시상한 이후 처음이다.

지난 9차례 시상에서 호날두는 모두 최종 후보에 올라 가장 많은 세 차례나 수상했고, 메시도 6번 최종 후보에 든 두 번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는 둘 다 최종 후보에조차 오르지 못했다.

UEFA 올해의 선수 수상자는 10월 1일 스위스 니옹에서 열린 2020-2021 UEFA 챔피언스리그 조 추첨 행사 때 발표된다. /연합뉴스

나달, 27일 개막 프랑스오픈 4연패 도전

권순우 남자 단식·복식 출전

올해 마지막 테니스 메이저 대회인 프랑스오픈이 27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스타드 롤랑가로스에서 개막한다.

프랑스오픈은 관례로 5월에 열리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9월로 개최 시기를 연기했다.

올해 대회에는 총 3800만유로(약 517억 4000만원)의 상금이 걸려 있고, 남녀 단식 우승자에게는 160만유로(약 21억 7000만원) 정도를 준다. 또 남녀 단식 본선 1회전에서 탈락하더라도 8000만유로 넘는 6만유로의 상금을 받아 갈 수 있다.

14일 끝난 US오픈이 무관중 경기로 열린데 비해 이 대회는 하루 5000명 관중을 입장시킬 계획이다.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은 클레이코트에 최적화된 경기 스타일로 프랑스오픈에서만 통산 12번이나 우승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연패,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연패를 달성했으며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도 3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올해 14일에 끝난 US오픈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여파로 불참했던 나달이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 20번째 우승을 달성, 로저 페더러(4위·스위스)가 보유한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 최다 우승 기록과 동률을 이룬다. 페더러는 무릎 부상 때문에 이번 대회에 나오지 않는다.

나달의 아성에 도전하는 선두 주자는 역시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다.

조코비치가 우승하면 메이저 대회 단식 우승 횟

수 18회를 기록하게 된다.

US오픈에서 생애 첫 메이저 타이틀을 따낸 도미니크 팀(3위·오스트리아)도 빼놓을 수 없는 우승 후보다.

여자들의 경우 최근 추세대로 혼전 양상이 예상된다.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이자 현재 세계 랭킹 1위 애슐리 바티(호주)가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불참하고, 올해 US오픈 우승자 오사카 나ومی(3위·일본)도 부상 때문에 결장한다.

2017년 준우승, 2018년 우승을 기록한 시모나 할레프(2위·루마니아)와 2015년 이후 5년 만에 패권 탈환을 노리는 세리나 윌리엄스(9위·미국)가 강력한 우승 후보로 주목된다.

한국 선수로는 권순우(82위·CJ 후원)가 유일하게 남자 단식과 복식 본선에 출전한다.

US오픈에서 생애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본선 승리를 따낸 권순우는 프랑스오픈 본선에는 올해가 첫 출전이다. /연합뉴스

‘기록의 사나이’ 미우라...만 53세 최고령 출전기록



일본 프로축구의 '살아있는 전설' 미우라 가즈오시(53·요코하마FC)가 23일 일본 가와사키 도도리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가와사키 프론탈레와의 J1 18라운드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했다. 만 53세 6개월28일의 나이에 그라운드를 밟은 그는 2012년 나카야마 마사시가 45세 2개월 1일에 세운 J1 최고령 출전 기록을 넘어섰다. 그는 1967년 2월생으로 홍명보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보다 2살 많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랑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다바
2관	물란
3관	오인회
4관	기괴괴괴 성형수
5관	다바
6관	검객
9관	태넷
7관 씨네커틀	물란, 다관 익에서 구하소서
8관 씨네커틀	아웃포스트, 기괴괴괴 성형수, 프란시스 하, 낙엽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전시

경계의공간

2020. 9.1.(화) ~ 11.1.(일)

광주문예회관 갤러리

11시 음악산책

정재형의 프롬나드

2020. 9. 29.(화) 11:0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회관 개관29주년 기념 특별기획

백건우와 슈만

2020. 10. 20.(화) 19:30

광주문예회관 대극장